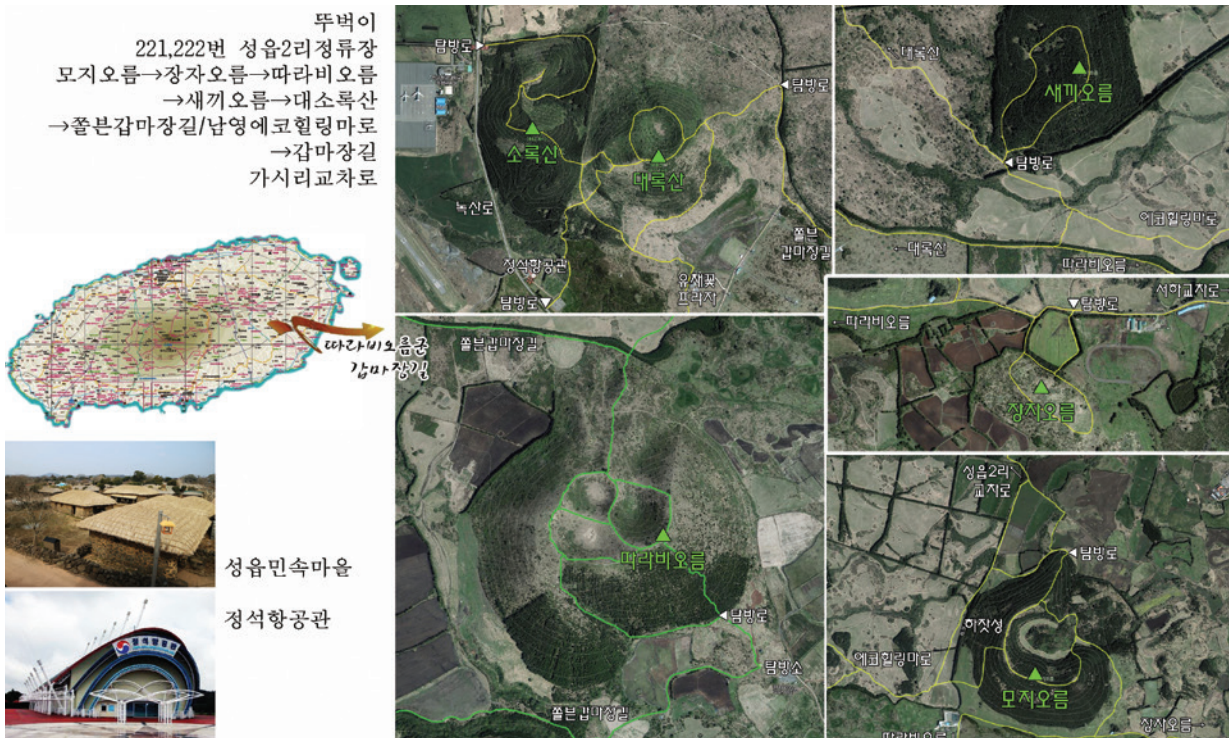


방기인(放送技術人)의 제주탐방 - 13

파라비오름군과 갑마장길

가시리 들판에서 3대가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오름 파라비오름군을 찾아간다. 지아비(할아버지) 파라비오름, 지어미 모지오름, 큰아들 장자오름, 파라비가 바람을 피워서 낳았다는 둘째 아들 새끼오름과 멀리 20여 리 떨어져 외로이 가족의 정을 그리워하는 손지오름이 오순도순 현재까지 잘살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다. 아름다운 파라비오름의 능선을 따라온 바람이 가시리들 풍력발전기를 돌리고 목초지를 가꿔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옛날 갑마장길을 내어 산책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생활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 가시리, 파라비, 갑마장, 사슴이, 머체라는 아름다운 이름 따라 몇 따라 가시리들을 간다.





따라비오름, 북쪽 자락에서 보기

따라비오름

기생화산 따라비오름(해발342m, 비고107m, 3개의 화구)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봉우리가 어우러진 형태이며, 서로 매끄러운 등성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산체를 이루는 특이한 화산체로, 오름 북쪽 사면으로는 말굽형으로 침식된 흔적이 남아있다. 따라비오름 동쪽에 모지오름이 이웃해 있어 마치 지아비, 지어미가 서로 따르는 모양이라서 따라비라 부른다는 설이 있고, 오름 가까이에 모지오름, 장자오름, 새끼오름이 모여 있어서 가장격이라 하여 따애비라 불리던 것이 따래비로 와전된 것이라고도 한다. 이 오름과 동쪽의 모지오름과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형국이라 하여 땅하래비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지조악地祖岳이다(加時里誌, 1998년 참조).

오름의 여왕이라 불리는 따라비오름을 찾아가는 뚜벅이의 여정은 쉽지 않으나 가시들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 철 따라 아름답게 분장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덕에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이나 보여 주는 전망은 과히 여왕이 베푸는 은덕이라 할 수 있다. 용눈이오름에 결코 내주지 않는 명성만큼이나 주차장이 외로운 날은 없다. 오름 사면을 따른 포근한 아자매트길을 따라 남쪽 정상에 오르면 3개의 굽부리가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쌓을 이룬 원형굽부리를 중심으로 말굽형굽부리가 서로 맞물려 6개의 봉우리가 아름다운 곡선으로 이어지면서 굽부리와 봉우리와 전망이 가히 여왕의 위엄뿐만 아니라 국태민안을 베풀고 있는 모습이다. 정상 동편의 사슴

이오름에서 모구리오름까지 표선·성읍에 펼쳐진 20여 개의 오름이 오밀조밀 함께하고, 서쪽으로 눈을 돌려 한라산 정상에서 발끝까지 시선을 훑어 내리면 동쪽 자락의 오름군과 풍력발전기 날개가 어울려 가시리들을 장방·정방형 사진틀 안으로 옮겨놓고 있다. 3개의 분화구 능선을 따라 봉우리들을 만나면서 등성이 곡선의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했다면 어쩌나? 만사 제쳐놓고 한번 더 만나야 후회하지 않으리라. 가을을 닮은 오름, 역사 따라 걷는 따라비오름이면 당신은 오름의 여왕과 함께하고 있는 최고의 왕의 시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뚜벅이 가시리사거리 가시리(222,732-1,2번) → 탐방소 3km

승용차 가시리사거리에서 중산간동로지선 탐방소(주차장)

모지오름

제주동부권 성읍과 가시리권에 위치한 오름들을 찾아가는 마음은 항상 가볍다. 만나면 만날수록 정이 들기 때문이다. 하물며 어머니의 정을 느끼는 모지오름은 더 그렇다.

번영로 성읍2리교차로에서 자신만만하게 찾아가 모지오름이었는데 농사꾼 표를 내어 밭작물에 정신 팔려 언제 개설한 지 모를 남영에코힐링마로에 갇혀 방향도 잃고 오도 가도 못한 황당한 신세

가 되었다. 결국, 서쪽자락 초지와 편백, 해송을 헤집는 전투등산을 하고서야 동북방향으로 난 분화구 등산길을 찾았다. 한껏 철을 만나 키를 훌쩍 넘는 억새밭은 어디서 시작해 어디서 끝날 것인가? 억새밭 등성이를 반 바퀴 돌아 동북향 분화구 자락 삼나무숲 탐방길을 따라 북쪽 등성이를 지나 그 자리 서쪽 정상에 다시 섰을 때야 모지오름 탐방로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정상 탐방로는 억새밭 길이고, 분화구 자락을 따라 난 길은 경작지 농로임을. 다시 오른 정상이지만 낯설다. 등성이를 이어주는 자신의 억새도 장관이지만 일렁이는 은빛 억새물결 따라 춤추는 북동쪽의 높고 낮은 가깝고도 먼 오름군들의 군무가 탄성을 자아낸다. 손자도 살피고 아들네 길도 어찌지 살펴본다. 동쪽 사면 편백숲으로 길을 내면서 동편 자락 초지로 내려와 성못길을 따라 나오면 번영로 셋길과 이어진다. 가까이 발가락 끝에서 손짓하는 것은 설오름인데 무릎쯤에 있어야 할 큰아들 장자오름은 어디로 이사라도 갔는가? 에미도 이제 기억이 희미하구나.

어머니가 아이를 껴안고 있는 형체를 닮았다고 해서 모자母子오름이라 한다. 표고 305.8m, 비고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86m이나 저경 977m로 비교적 큰 산체에 속한다. 말굽형화구 안에는 별도의 알오름火口丘이 솟아 있는데 이 모습이 자식을 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과 닮았다. 이 때문에 오름능선의 정상부 주봉일대를 에미[어미]동산이라 부른다.



뚜벅이 번영로(97번로) 성읍2리(221,222번) → 탐방소 1.6km

승용차 분화구쪽 임도와 연한 탐방길 빈터

장자오름

따라비오름을 중심으로 하는 오름가족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는 모지오름의 남편이나 장자로써 사내대장부 역할로써 장자오름이 등장한다. 따라비와 모지오름에 외면당한 채 낮은 자세로 편안히 누워있는 무사태평, 쪽박 찬 대장부를 찾아 나섰다.

장자오름은 삼나무숲 어디엔가 있을 것인데... 다행히 가시리주민을 만나 장자오름위치와 가는 길을 안내받았지만 올바른 길을 찾기는 쉽지 않다. 시멘트포장·비포장목장길, 울타리그물망과 철조망을 넘어 삼나무숲 속 말들을 경계하며 땅가시덤불을 지나고서야 나지막한 동산 장자오름에 올랐다. 높지도 험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다지도 어렵게 맞아주는가? 장자로써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말썽을 피우다 따돌림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정상엔 이장묘 산담만 쓸쓸히 지키고 있다. 전경은 모지오름의 전망이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등성이와 분화구는 온통 초지, 농지로 개간되었고 자락은 방풍·경계표시 삼나무숲으로 둘러싸여 부모님은 물론 형제들과도 격리되어 표고 215.9m, 비고 31m의 왜소한 산체로 장자노릇도 하지 못하는 신세를 한탄하면서 모지오름을 머리로 하여 남동쪽으로 길고 낮게 드러누워 성찰하고 있는 모습이 애처롭다. 오늘 오르미가 장자의 신세를 헤아려준다. 둘이다가 하나가 된 나무를 돌아 나오는 것으로 장자오름과 말들과 헤어지면서 따라비오름과 새끼오름을 손틀 안에 넣어본다.



뚜벅이 모지오름과 연계

모지오름, 들머리에서 보기





◀달산봉
▼둘이다 하나가 된 소나무



장자오름 정상과 전망

새끼오름

형님과 악수정도로 작별인사를 하고 시멘트포장 목장길을 지나 목장초치 트랙터 자국을 따라 지아비와 동생을 찾아간다. 말들이 한 번이라도 지나가거나 했을까? 역새와 야생화, 잡초들이 야자매트를 무색하게 만들었고 안내줄만이 남영에코힐링마로 임을 알리고 있다. 말이라도 잘 갈 수 있으려나? 차라리 편백숲 속을 따라가는 것이 편하고 뚜렷하다. 따라비오름 자락, 감마장길, 남영에코힐링마로가 만나는 그곳이 새끼오름 탐방로다. 북쪽오름능성까지 임도를 따라갈 수 있다. 그 이상 탐방로는 없다. 적당한 곳에서 반대방향 정상으로 올라야 한다. 동쪽 사면의 삼나무숲을 제외하고는 탐방길과 정상은 소나무가 차지하고 있다. 그래도 예전에는 탐방길이 있었던 모양이다. 정상이라는 흔적도 표식도 없고 전망도 없다. 높은 곳에 올랐다는 것이 정상인 것이다. 소나무숲 속을 따라 남쪽 자락에 내려오면 시작했던 그곳에 길 흔적이 있음을 안다. 할아버지 따라비와 큰아들 장자, 며느리 모지오름을 이어주는 가족들이 왕래하는 길이다. 주변의 큰사슴이나 따라비오름에 비해 작

은 산체 때문에 새끼오름, 추악雞岳이라 부르나 결코 병아리 수준은 아니다. 표고 301.2m, 비고 51m, 서향의 말굽형화산체다.



뚜벅이 따라비오름과 연계

손지오름



손지오름, 북동쪽 분화구

어떻든 나는 할아버지 따라비오름의 손자 손지오름이다. 할아버지, 아버지와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니 아마도 다량쉬나 용눈이오름네에 양자로 입적되었는 모양이다-필자생각. 일대에서 나의 존재는 영주산과 함께 확실하다. 북쪽 자락의 장방형 삼나무구획 영주산과 나의 삼나무숲X띠가 그것이다. 중산간동로와 용눈이오름로가 만나는 손자봉 교차로에서 서쪽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돌아 앉아있는 손지오름의 건강한 모습을 확인하는 것으로 맺는다. '제주탐방-2'에서 만났다.



뚜벅이 중산간동로(손자봉교차로) 다량쉬오름입구(211,212,810-1번)

새끼오름, 들머리에서 보기



대·소록산

큰사슴이라 대록산大鹿山이라 부르며 표고 474.5m, 비고 125m로써 산체 모양, 접근성, 탐방로(야자-타이어매트, 목책계단, 용암-흙길)와 전망 등 오름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전형적인 오름의 모습이다.

건너편 왕왕거리는 바람 소리를 내며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날개를 보고 좌측 삼나무숲을 지나면 갑마장길이다. 대록산 탐방 때 숙이와 같이 했던 길이기에 초지 목장길을 따라 대록산을 보고 간다. 한참을 가다 초지도 막바지다. 길이 없다. 오른쪽엔 중장비 소리가 굉음을 내고 있다. 팜파스 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공사다. 길도 나름대로 내고 있는데 에둘러가기엔 멀다. 역새 숲을 헤치고 헤쳐 대록산 탐방로에 왔다. 갑마장길표지는 예전 그대로구나. 야자매트와 목책계단도 예전 그대로이나 은빛 역새 물결은 가을 서정 감흥을 자아내고 있다. 작정하고 7부 능선에서 은빛 물결과 전경에 흠뻑 취해본다. 북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이어지는 오름하늘선이 정말 장관이다. 9부 능선에서 쫄본갑마장길로 접어든다. 북쪽으로 난 굴부리를 따라 잡목을 비집고 깐 야자매트길을 따라 굴부리 탐방을 마치면 남쪽 정상과 이어진다. 굴부리 안에는 또 다른 역새가 잔잔한 물결을 일렁이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한라산의 그 모습을 언제쯤이면 선명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정석항공관이 관심을 끌면서 가까이한다. 소록산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8부 능선에서 오른쪽으로 난 길을 따라간다. 절벽에 물을 이고 있는 용암에 걸터앉아 시장기를 달래고 이리저리 흔적을 찾는다. 예상했던 길이다. 가파른 경사에서 뿌리를 내려 길 표시를 감추는 역새지만 등산객의 발길은 본능적으로 따라간다. 원래 탐방로를 만나 십여m에서 편백, 삼나무숲으로 난 오르미의 흔적을 찾아 들어섰다. 소록산(남봉)으로 가고 있다. 삼나무숲을 빠져나오면 잡목이 험겁게 길을 내주나, 조릿대와 덩굴이 하늘을 가리면서 굽힌 걸음을 강요한다. 그렇게 오르면 쌍둥이 형 정상(남봉)이다. 아무리 작은사슴이오름이라지만 큰사슴이오름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전망도 분화구도 식생도 많이 낯설다. 해발 441.9m, 비고 100m, 말굽형 화구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길게 누운 쌍둥이 화산체다. 쌍둥이 동생은 서사면을 경계로 소나무와 삼나무숲이 구분되면서 뻗어 난 탐방로 그 끝에 있다. 정상에서의 아쉬움은 중간에 정석항공관쪽으로 전망을 내주면서 쉬어 가게 한다. 건너편은 물영아리, 여문영아리, 쳇망, 가문이, 구두리오름이 지키고 있다. 소나무숲 임도 탐방로를 따라 쌍둥이 동생 봉우리를 오른다. 자잘한 소나무숲으로 시작해 가시덤불숲을 비껴 가는 등산길



소록산, 대록산에서 보기

은 8부 능선부터는 탐방을 거절하고 있기에 따라야 했고 삼나무숲을 헤치고 만난 길은 잘 단장된 정석항공관가는 길이다. 송이에 모시풀에 삼나무숲이 원근을 대비시킨다. 길게 그림자를 그리며 작은사슴이오름탐방로에 왔다. 대한항공 정석항공관, 한국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제동목장갈림길이다. 붉은오름 휴양림이 저 멀리 보이거나 하는 걸까. 활주로만 까마득한 것이 아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시간과 함께 거리도 줄어든 것이다. 제동목장, 활주로를 잇는 녹산로를 따라오다 갈림길에서 구두리오름 자락으로 가는 목장길을 따라오면서 가을 정취에 흠뻑 젖어 들었다. 역새의 은빛 물결에 더해 햇빛을 받은 녹음 짙은 초지의 물결도 정말 멋있구나. 잠시 계절도 잊었고 자신도 잃었다. 오늘의 긴긴 탐방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할 줄은 정말 몰랐다. 구두리오름 남쪽 자락을 따라 가문이오름 탐방로를 만나고 남조로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정류장에 왔다. 따듯한 햇볕을 받으며 휴양림 숲속으로 뉘엿뉘엿 저무는 해를 보며 노곤함을 달랜다. 이제 속세로 들어왔음을 느낀다.



뚜벅이 따라비오름과 연계, 정석항공관 뒷편 탐방로

승용차 정석항공관, 유채꽃프라자 주차장

갑마장길과 남영에코힐링마로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갑마장길이 있다. 갑마장길은 예전에 말이 다니던 길로써 6~7시간 정도 걸리는 탐방로로 20km 정도다. 그중에 걷기 좋은 길만 추려놓은 길이 쫄본갑마장길 10km로 서너시간 걸린다. 따라비오름과 큰사슴이오름을 탐방하는 방법에 따라 거리와 시간은 조정된다. 쫄본은 짧은 뜻의 제주어다.



대륙산에서 보는 북동쪽 전경

□ 제주의 늦가을 정취를 함께했던 작은 숙이를 보내고 큰 숙이와 같이 오랜만에 승용차로 따라비오름 갔다가 우연찮게 쭈본갑마장길과 같이 하는 행운을 잡았다. 시작점과 종점은 중요하지 않다. 따라비오름에서 큰사슴이오름까지 이어진 삼나무·편백나무숲과 잣성길은 인연의 의미를 가지며 우리를 이어주고 있다. 풍력발전기의 크나큰 바람개비가 웅웅 소리 내며 전기를 만들어 내고 있거나 한 것일까? 국궁터의 과녁은 얼마나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보이는가? 시멘트포장길은 그나마 역사가 가장자리를 채워주니 꼴불견은 조금 면했다. 유채꽃 플라자에서 제주의 화산흙과 마주했다. 가시리 천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꽃머채, 행기머채를 지나가는 길은 한남리 머채왓소롱곶길과 너무나 닮은 모습이다. 그렇게 머채길을 걸어 따라비오름 자락-주차장에 왔다. 시작 때와는 달리 많은 탐방객이 따라비오름 품에 안겼구나. 은빛 역새물결에 배

경이 되어준 큰사슴이오름과 따라비오름이 있어 좋았다. 아름다운 내 곁에도 뒤에도 있다.

□ 해를 바뀌가면서도 꼭 탐방하고 싶었던 갑마장길을 가시리오름군과 함께했다. (쭈본)갑마장길, 따라비·가시리오름군탐방길, 남영에코힐링마로, 가시마을4·3길로 네댓 동강을 내면서야 가시리 일대 탐방을 마무리했다. 가시마을4·3유적길은 마을 중심부를 지나면서 가시리의 어제와 오늘을 보여주고, 가시리오름군(갑선아·설·병곳·번널)은 자락을 이어가며 산채와 셋길로 유혹하고, 그림 같은 원경을 보여주는 따라비오름군은 또다시 쭈본갑마장길을 어여가는 나그네가 되라고 떠민다. 가시리마을안길-가시천변-가시리오름군 자락-쭈본갑마장길-안좌천변-가시로(가시리사무소)까지 장장 20km인 하천과 오름을 따라가는 갑마장길이지만 잠깐 들리면서 쉬면서 즐길 수 있는 가슴 가득 찬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가시·안좌천을 따라 영글어가는 감귤과원의 풍요로움과 이름도 예쁜 햇빛발전소, 독특한 길 안내 표시·유적 안내판들은 머릿속에 새록새록 오래도록 남는다. 가시리 문화여행 10선과도 함께하는 원시의 울창한 곳자왓을 지나고, 말 마을답게 목장과 광활한 초지를 따라가는 탐방길이 외로운 나그네길 같지만 결코 외롭지 않고 지루하지도 않다.

갑마장길, 조랑말 박물관



////// 
 ≡ 가시마을4·3유적길(7km) : 4·3길센터 - ① 가시리본동4·3성터 -
 ② 고야동산 - ③ 한씨방묘 - ④ 구석물당 - ⑤ 면암최익현유적비 -
 ⑥ 마두릿동산 - ⑦ 종서물 - ⑧ 새거름 - ⑨ 가시천 - ⑩ 갑선이오름
 - ⑪ 달랭이모루



갑마장길 안내

□ 전국 제1호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제주도에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해 7개소(72km)에 에코힐링Eco-healing마로를 조성했는데 남영에코힐링마로(남영산업, 사이프러스CC)도 그중 한 곳이다. 말을 타고 개설된 마로를 따라가면서 자연 속의 신선한 산소와 피톤치드를 들이마시는 상쾌한 기분은 몸을 가볍게 하면서 치유력을 회복시킴으로써 심신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에코힐링마로인데. 글쎄 오늘의 남영에코힐링마로는 아닌 것 같다. 초지, 임야, 농로 등의 바닥을 최소의 수준에서 정리할 당시의 초심이라면 이렇게까지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남영산업의 경제 논리에 따른 이용과 관리의 악순환 고리가 꼭 잠겨있는 것 같다. 기대하고 들어왔다가 정말 고생만 했다. 말을 안 타서가 아니고 말들은 더더욱 가고자 하지 않았을 것이다.



뚜벅이 가시리중산간도로 가시리농협(222,295,732-1번) → 탐방로
승용차 가시리사무소(화장실)

남영에코힐링마로



연계 관광지

정석항공관과 비행장 :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위치한 항공과 관련된 내용을 홍보, 전시하는 전문 박물관으로 대전엑스포 당시 대한항공전시관으로 설치했던 미래항공관을 철거하여 새롭게 단장하여 항공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과 항공기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다. 입장은 무료이니 제주 오면서 타고 왔던 비행기와 항공분야에 관심 가져 보면 어떨까.



항공훈련원과 활주로



제주 문화

제주말 익히기 :

두렁정이 어디로 가겐 햄궁?

정신없이 어디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제주음식 빙떡 : 빙빙 마는 떡이라 하여 빙떡이라 부른다. 고운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얇고 둥글게 전을 부친 후 무, 당근, 파, 소금, 참깨가루, 참기름 등을 골고루 섞어 소를 만들고 전위에 올려놓아 둥글게 말면 빙떡이 된다. 빙떡은 서귀포 여성들의 보편적인 부조음식으로서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이 깃들여 있는 상징적 식문화 자원이다.



동문시장

제주명소 성읍민속마을 : 제주도의 옛 마을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곳. 거센 바람에 지붕이 날아갈까 돌로 눌러놓은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다. 조선 시대 정의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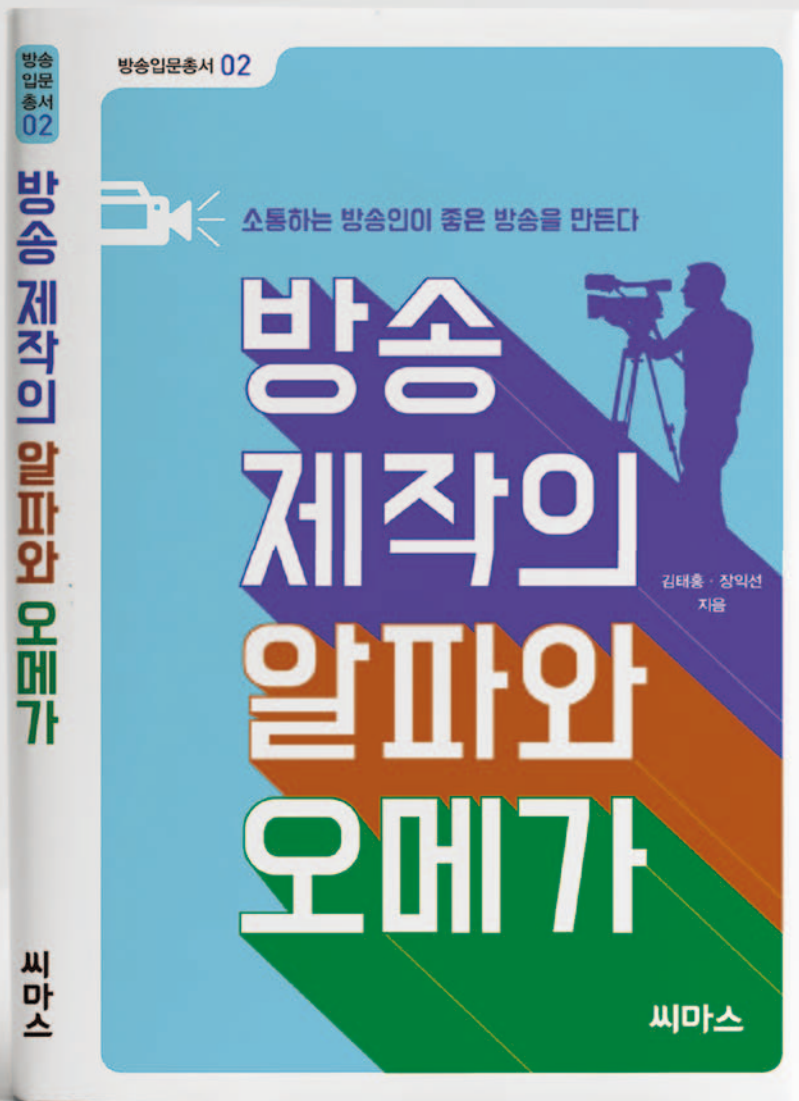
이 집무하던 기관인 일관헌,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조선 세종 때 축성된 성곽 등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188호로 지정됐다.

소위 **오름왕국**이라고 하는 구좌·표선들로 간다. 금백조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오름왕국에 들어서면 여기저기 울룩불룩 솟아 있는 오름들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내가 왜 여기 왔는지조차 모를 지경이다. 분명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잡아 인생을 정진하듯이 오름을 찾아간다. 아부·높은오름, 문석이·거미오름, 백약이·좌보미오름, 궁대악·후곡악·돌리미오름과 바람 따라 낭끼오름까지 간다. ☁

‘드라마 제작의 알파와 오메가’에 이은 방송입문총서

소통하는 방송인이 좋은 방송을 만든다

방송 제작의 알파와 오메가



“방송사 내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모든 현업 종사자의 이야기를
알기 쉽고 간결하게 다룬
방송 제작의 지침서”



주요 차례

- 1장 방송 제작의 개요
- 2장 연출 관련 업무
- 3장 뉴스 및 기자, 스포츠 관련 업무
- 4장 촬영 및 중계 관련 업무
- 5장 제작기술 전반 작업 관련 업무
- 6장 제작기술 후반 작업 관련 업무
- 7장 작가 및 진행자 관련 업무
- 8장 미술 관련 업무

주요 독자

- 미래의 방송인을 꿈꾸고 관련된 직업을 탐구하는 모든 학생
- 미디어 관련 학과로 진학하고자 하는 입시생
- 대학의 영상이나 미디어 관련학과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취업 준비생
- 방송 제작 관련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김태홍, 장익선 지음
2018년 8월 20일 발행
264쪽 | 값 17,000원